



1



2



3

1 신정호수공원 2 충남 아산 외암마을 3 세계꽃식물원

“코로나 블루에 지친 당신, 아산으로 봄나들이 떠나요” 혼자 떠나도 괜찮고, 함께 떠나도 괜찮은 ‘아산’ 치유 여행

혼자 여행하면 모든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. 사람과 일정에 쫓겨 당장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없으니 천천히 걷게 되고, 천천히 구경하고,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. 그림의 미학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‘나 홀로 여행’(혼행) 관광지가 아산에 기다리고 있다.

아산 외암마을

자연과 전통, 조상들의 지혜와 삶을 엿볼 수 있는 충남 아산 외암마을(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)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설화산을 배경으로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.

조선 시대부터 예안 이씨 집성촌으로 형성돼 현재까지도 80여 채 전통 가옥이 그 모습을 그대로 마을을 지키고 있다.

그중 조선 시대 영암군수 이상의 선생이 살던 견재고택은 마을을 대표하는 고택 중 하나다. 1869년 건축한 이래 150년간 그 모습을 유지하며 1998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됐다. 사랑채, 문간채, 안채, 정원을 조화롭게 구성해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전형을 보여준다.

신정호수공원·카페거리

신정호수공원은 1926년 조성된 아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. 온양온천역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.

산책로와 가로수 공원, 연꽃단지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웰빙공원으로 야외음악당, 잔디광장, 음악분수공원, 생태수상공원 등 다양한 테마 시설을 갖췄다.

또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

도심 속 휴식처가 되어준다.

신정호수공원 주변으로 예쁜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신정호 카페거리가 조성돼 SNS에서 검색(#신정호카페 #신정호맛집)만 해도 약 10만 개 이상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.

세계꽃식물원

세계꽃식물원은 다채로운 색상과 향긋한 봄 내음으로 오감을 사로잡는 3천여 종의 원예종 관상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온실 식물원이다.

사시사철 이름 모를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식물원 덕분에 아산에는 365일 매일같이 따사로운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.

원예와 정원문화가 발달한 유럽과 미국,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‘네덜란드식 기든 센터’를 본떠 만든 공간을 2004년 한국에 처음 도입해 다양한 원예 체험 행사를 개설했다.

자연 관광농원 ‘피나클랜드’

봄 향기 가득한 자연 관광농원(수목원) 피나클랜드는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.

아산만 방조제 매립을 위해 채석장으로 사용된 곳을 이창호 선생(거제 외도 보타니아 설립자)이 자녀들과 함께 손수 가꿔 만든 곳으로 지난 2006년 7월에 첫 개관했다.

지난해 (주)피나클랜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시작한 피나클랜드는 식물 자원을 직접 재배하고 전시적 기능과 공원적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 자연이 주는 쉽고 치유를 만끽할 수 있다. ❶



온양온천 Onyang Hot Spring



영인산자연휴양림 Younginsan Natural Recreation Forest



세계꽃식물원 World Flower Botanical Garden



온양민속박물관 Onyang Folk Museum



피나클랜드 Pinnacleland



현충사 Hyeonchungsa Shrine



지중해마을 Blue Crystal Villag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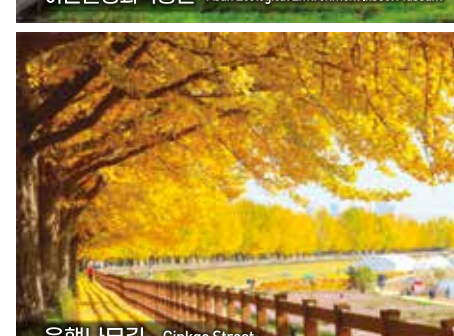
신정호수공원 Sinjungho Lake Park



아산환경과학공원 Asan Ecological Environment Insect Museum



아산외암마을 Asan Oeam Folk Village



은행나무길 Ginkgo Street



공세리성당 Gongseri Shrine Catholic Church

365일 아름다운 아산에 반하다

ASAN